

제 8 장 토론문

「한반도의 무질서한 지정학: 경부선 부산진-초량 간 부설 당시의 다층적 갈등을 사례로」

발표자: 김지수

토론자: Tran Tung Ngoc (진송옥)

김지수 선생님의 발표는 콜린 플린트가 제 8 장에서 제시한 ‘무질서한 지정학’의 개념을 한반도의 근대 철도 부설 과정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발표문은 경부선 부산진-초량 구간의 건설을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공간에 철도를 이식한 사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일본 군부, 경부철도주식회사, 대한제국 정부, 조선인 객주와 상인, 빈민 등 여러 행위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충돌한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군부의 군사적 신속성과 철도회사의 장기적 경제 이윤이라는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하나의 국가나 제국도 단일하고 동질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발표문이 일본 군부와 철도회사의 이해관계 차이, 조선인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구분하여 서술한 것은 플린트의 분석틀을 한국의 역사적 사례에 적용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1. ‘무질서’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구조화된 복잡성

먼저 발표에서 사용된 ‘무질서’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린트가 말하는 무질서는 규칙이나 구조가 없는 혼란이 아니라, 여러 목적과 정체성을 지닌 지정학 행위자들이 국민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종교, 계급, 국가 간 경쟁 등 중층적 구조의 기회와 제약 속에서 행동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부산진-초량 구간의 사례에서도 행위자를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각 행위자의 목표와 선택을 규정한 구조를 밝혀야 합니다. 일본 군부는 제국주의와 러일 간 군사 경쟁, 병참망 구축의 필요성 속에서 행동했고, 경부철도주식회사는 식민지 시장 확보와 경제적 이윤을 추구했습니다. 조선인 객주와 주민들의 저항도 상권, 토지, 가족의 생계와 지역 공동체 유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여러 행위자의 충돌 자체보다 군사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지역 생계구조가 중첩되어 서로 다른 선택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일본 군부는 강제적 방식으로 신속한 공사를 추진한 반면, 철도회사는 비용과 공사 지연을 우려해 협상과 회유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로 구체화하면 발표의 이론적 설득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2. ‘조선인’을 하나의 동질적인 행위자로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논의할 점은 행위자 내부의 다양성입니다. 플린트는 잠무와 카슈미르의 사례를 통해 갈등의 어느 한쪽도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같은 진영 안에서도 파키스탄 편입, 완전한 독립, 인도 헌법 내 자치 확대처럼 서로 다른 목표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발표문은 일본 군부와 경부철도주식회사의 차이는 잘 보여주지만, 조선인들은 ‘객주와 상인’, ‘빈민’, ‘지역 주민’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객주와 노동자, 지역 유지와 빈민, 철도로 피해를 본 집단과 새로운 기회를 기대한 집단의 이해관계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관료들 역시 일본의 요구 수용, 보상과 절차의 중시, 주민 민원 전달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허용한다면 ‘조선인 대 일본인’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조선인 내부의 계급, 직업, 토지 소유와 이해관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조선인의 저항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형성되고 분열되거나 연대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부산진-초량 사례를 거시적 식민지 갈등과 미시적 지역 갈등이 중첩된 ‘무질서한 지정학’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3. 거시적 철도정책은 개인의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되었는가?

세 번째는 개인과 일상의 층위입니다. 플린트는 팔레스타인 난민 아드난과 다푸르의 파투마 사례를 통해 지정학이 국가나 민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안전, 생계, 신체, 결혼과 같은 개인의 일상에 중첩되어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발표문도 철도 건설이 주민의 “미시적 일상”을 파괴했다고 지적하지만, 구체적인 경험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토지를 빼앗긴 주민의 이주, 객주의 유통망 상실, 강제 동원 노동자의 경험, 보상 대상과 배제된 사람 등을 진정서, 토지 문서, 신문기사와 개인 증언을 통해 보완한다면 일상적 지정학을 더욱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주와 생계 상실 과정에서 가족 돌봄과 가내 경제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지, 철도 공사와 해안 매립이 여성의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단정하기보다 기존 기록에서 배제된 행위자와 경험을 밝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근대화’와 ‘공익’이라는 표상도 분석되어야 한다

플린트는 정부·언론·전문가가 제시하는 지정학적 ‘상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행위자와 구조가 강조되거나 배제되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젠더, 계급, 종교, 민족 등 기존 설명에서 소외된 관점을 포함해 더 총체적인 분석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부선 부설을 정당화한 ‘근대화’, ‘안보’, ‘개발’, ‘공익’이라는 언어도 분석 대상이 됩니다. 같은 철도 공사가 일본 측에서는 근대화와 안보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토지 침탈과 생계 파괴로 표상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이러한 공간적 표상을 비교하는 것이 비판적 지정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지수 선생님의 발표는 경부선 부설을 국가 중심의 거대서사에서 벗어나 여러 행위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한 과정으로 재해석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플린트의 ‘무질서한 지정학’과 더 긴밀히 연결하려면 중층적 구조를 명확히 하고, 일본과 조선 양측의 내부 차이를 세분화하며, 철도 건설이 개인과 가족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 질문

1. 부산진-초량 구간에서 일본 군부와 철도회사의 갈등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구조는 군사적 시간의 압박, 자본의 이윤 추구, 식민지적 토지제도 가운데 무엇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2. 객주, 상인, 토지 소유자, 빈민, 노동자와 대한제국 관료 등 조선인 행위자들의 내부적 차이와 갈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합니까?
3. 이 사례를 제국주의 국가가 철도를 건설한 ‘위로부터의 지정학’뿐 아니라, 주민들의 진정·협상·저항이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지정학’ 또는 대항지정학의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플린트는 지정학적 상대가 처한 구조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공포, 관심과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이며, 지정학적 지식이 요구하는 태도는 편집성이 아니라 겸양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지수 선생님의 발표는 철도 부설이라는 익숙한 역사적 사건을 여러 행위자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사료와 미시적 경험이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